

대신 기출

국어 금성 (1학기)

총력만능국어

www.chongmangug.co.kr

[교재 구입]

<<내신 기출 국어 금성, 1학기 편>>

◆차례◆

1. 문학이라는 이름의 나무

(1) 서정 갈래

*첫사랑_고재종-----1쪽 (42문제)

*이화에 월백하고_이조년 / 귀뚜라미_나희덕-----12쪽 (28문제)

(2) 서사.극 갈래

*봄.봄_김유정-----21쪽 (36문제)

(3) 교술 갈래

*아, 참 좋은 울음터로구나!_박지원-----39쪽 (30문제)

*지갑-----54쪽 (4문제)

*눈물은 왜 짠가-----56쪽 (5문제)

2. 생각 다듬기, 표현 가다듬기

(1) 담화 상황에서의 점검과 조정-----57쪽 (5문제)

(2) 읽기와 쓰기 과정의 점검과 조정-----61쪽 (11문제)

3. 올바른 발음과 표기

(1) 음운의 변동-----69쪽 (61문제)

(2) 한글 맞춤법-----86쪽 (65문제)

4. 성찰하는 눈

(2) 삶의 성찰

*엇박자 D-----104쪽 (8문제)

*동승-----108쪽 (6문제)

5. 글, 사회적 상호 작용의 통로

*황상-----111쪽 (11문제)

*네가 누리는 축복을 세어 보라-----116쪽 (8문제)

▶전체 정답-----120쪽

▶해설-----122쪽

문의 및 오류 신고: pt005pt (카톡 아이디)

① 변동

- ① 개념: 어떤 음운이 놓이는 환경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는 현상
- ② 음운 변동이 나타나는 이유: 발음을 좀 더 쉽게 하고, 표현을 명료하게 하여 뜻을 좀 더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나타남.

② 음운 변동의 종류

교체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	■ + ● → ■ + ▲
탈락	원래 있던 음운이 없어지는 현상	■ + ● → ■ ○
첨가	없던 음운이 새로 더해지는 현상	■ + ● → ■ + ▲ + ●
축약	두 음운이 합쳐져서 제3의 한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	■ + ● → ▲

* 음운이 바뀌지 않는 부분: ■, ● / 음운이 바뀌는 부분: ▲, ●, ▲

③ 음운 변동의 예시

■ 교체

종류	내용
비음화, 유음화	<p>① 비음화: 비음이 아닌 음운이 비음 ‘ㄴ, ㄹ, ㅇ’의 영향을 받아 비음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p> <p>(1) 음절의 끝소리 ‘ㄱ, ㄷ, ㅂ’이 뒤에 오는 비음 ‘ㄴ, ㄹ’ 앞에서 비음인 [ㄴ, ㄹ, ㅇ]으로 바뀌어 발음됨. 예) 국물[궁물]</p> <p>(2) 비음 뒤에서 유음이 비음으로 바뀌어 발음됨. 능력[능녁], 남루[남:누]</p> <p>(3) 음절의 끝소리 ‘ㄱ, ㄷ, ㅂ’ 뒤의 유음이 비음으로 바뀌고, 바뀐 비음을 닮아서 앞의 ‘ㄱ, ㄷ, ㅂ’이 비음으로 바뀌어 발음됨. 백로[뱅노], 몇 리[면니]</p> <p>② 유음화: 비음인 ‘ㄴ’이 앞뒤에 오는 유음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바뀌어 발음됨. 설날[설:랄], 신라[실라]</p>
구개음화	<p>받침이 ‘ㄷ, ㅌ’인 형태소가 모음 ‘ㅣ’나 반모음 ‘ㅚ’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면 [ㅈ, ㅊ]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p> <p>예) 말이[마지], 굳이[구지]</p>
된소리되기 (경음화)	<p>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p> <p>(1) 음절의 받침 ‘ㄱ, ㄷ, ㅂ’ 뒤에서 ‘ㄱ, ㄷ, ㅂ, ㅅ, ㅈ’이 된소리로 바뀌어 발음됨. 예) 국가[국까]</p> <p>(2) 용언이 활용할 때 어간의 받침 ‘ㄴ, ㄹ’ 뒤에서 어미의 자음 ‘ㄱ, ㄷ, ㅅ, ㅈ’이 된소리로 바뀌어 발음됨. 신지[신:찌]</p> <p>(3) 한자어의 받침 ‘ㄹ’ 뒤에서 ‘ㄷ, ㅅ, ㅈ’이 된소리로 바뀌어 발음됨. 물질[물찹]</p>

3-(1) 음운의 변동

■ 탈락

종류	내용
모음 탈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래 있던 모음이 ‘ㅏ/ㅑ’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 • 결과가 실제 표기에도 반영됨. <p>(1) ‘ㅡ’ 탈락: 어미 ‘-아/-어’ 앞에서 어간의 ‘ㅡ’가 탈락함. 예) 잠그- + -아 → 잠가</p> <p>(2) 동음 탈락: 모음 ‘ㅏ/ㅑ’로 끝나는 어간 뒤에 모음 ‘ㅏ/ㅑ’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그중 하나가 탈락함. 가 + -아라 → 가라</p>
두음 법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자음의 경우, 일부 소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발음되는 것을 꺼려 다른 소리로 발음되는 현상 • 결과가 실제 표기에도 반영됨. <p>(1) 한자음 ‘녀, 뇨, 뉴, 니’가 단어의 첫머리에 오면 ‘ㄴ’이 탈락함. 예) 여자(女子)</p> <p>(2) 한자음 ‘랴, 려, 례, 료,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때 ‘ㄹ’이 탈락함. 양심(良心)</p> <p>(3) 한자음 ‘라, 래, 로, 뢰, 루, 르’가 단어의 첫머리에 오면 ‘ㄹ’이 ‘ㄴ’으로 교체됨. 내일(來日)</p>

■ 첨가

종류	내용
반모음 첨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음으로 끝난 용언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가 결합될 때에 모음 충돌을 막기 위해 반모음 ‘ㅿ’가 덧붙는 현상 • 음운의 음가대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나, 반모음 ‘ㅿ’를 첨가하여 발음하는 것도 허용됨. <p>예) 피- + -어 → 피어[피어/피여]</p>

■ 축약

종류	내용
거센소리되기 (자음 축약)	<p>‘ㅎ’이 예사소리와 만나 거센소리[ㅋ, ㅌ, ㅍ, ㅊ]로 발음되는 현상</p> <p>예) 놓고[노코], 축하[추카]</p>

모락고등학교 (경기)

1. <보기>에서 설명하는 음운 변동의 예로만 묶인 것은?

<보기>

음운 변동의 유형 중 특이한 것으로 축약을 들 수 있다. 축약은 'A'와 'B'라는 두 음운이 결합하여 'C'라는 제삼의 음운으로 줄어드는 음운 변동이다. 국어의 축약은 주로 'ㅎ'과 다른 자음이 결합할 때 일어난다.

- ① 잃고[일코], 많군[만쿤] ② 앓아[아나], 많지[만치]
- ③ 넣은[너은], 놓다[노타] ④ 많네[만네], 쌓은[싸은]
- ⑤ 쌓는[싼는], 앓고[안코]

모락고등학교 (경기)

2. 밑줄 친 말 중에서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단어로 적절한 것은?

<보기>

음운 변동의 유형 중 탈락의 한 종류로서, 두 개의 모음이 만났을 때 그 중 한 개의 모음이 탈락하는 현상을 모음 탈락이라고 한다.

예 쓰- + -어 → [써], 푸- + -아서 → [퍼서]

- ① 눈을 떠 보니 잡이엇지 뭐야.
- ② 눈에 띄게 네 얼굴이 수척해졌어.
- ③ 결국 만형이 모든 일을 처리해야 돼.
- ④ 이거 마음에 들면 내가 가져도 괜찮아.
- ⑤ 공책을 어디에 뒀는지 몰라 한참 찾았어.

모락고등학교 (경기)

3. <보기>의 ㉠, ㉡에 해당하는 예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기>

'ㄴ'이 앞이나 뒤에 오는 유음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바뀌어 소리 나는 현상을 유음화라고 한다. 유음화는 음운이 동화되는 방향에 따라 ㉠순행적 유음화와 ㉡역행적 유음화로 나눌 수 있다.

- | | |
|-----------|-----------|
| ㉠ 순행적 유음화 | ㉡ 역행적 유음화 |
| ① 물난리 | 종로 |
| ② 광한루 | 대관령 |
| ③ 전라도 | 논란 |
| ④ 줄넘기 | 강릉 |
| ⑤ 실내 | 탄력 |

모락고등학교 (경기)

4. <보기1>과 <보기2>를 참고로 학생들이 된소리되기 현상을 탐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1>

된소리되기란, 예사소리 'ㄱ, ㄷ, ㅂ, ㅅ, ㅈ'이 앞의 소리에 영향을 받아 된소리인 'ㄱ, ㄷ, ㅃ, ㅅ, ㅉ'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현상이다.

<보기2>

표준발음법 제6장 된소리되기

제23항
받침 'ㄱ(ㄱ, ㅋ, ㆁ, ㄷ), ㄷ(ㄷ, ㅌ, ㅍ, ㅅ, ㅆ, ㅈ, ㅊ, ㅅ, ㅆ, ㅈ, ㅊ, ㅅ, ㅆ, ㅈ, ㅊ)'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예) 꽃고[꼰꼬], 넓죽하다[넙쭈카다]

제24항
어간 받침 'ㄴ(ㄴ), ㄹ(ㄹ)'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예) 삼고[삼꼬], 껌안다[껴안따]
다만, 피동, 사동의 접미사 '-기-'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예) 안기다[안기다], 굶기다[굶기다]

제26항
한자어에서, 'ㄹ' 받침 뒤에 연결되는 'ㄷ, ㅂ, ㅅ'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예) 갈등[갈똥], 물질[물짚]

제27항
관형사형 '-(으)ㄹ'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예) 할 것을[할꺼슬], 갈 데가[갈떼가]

- ① '깎아'가 [까까]로 발음되는 이유는 제23항에 따라 받침 'ㄱ'이 'ㄱ'으로 발음되어 뒤에 연결되는 'ㄱ'을 된소리로 만들기 때문이야.
- ② '더듬지'가 [더듬찌]로 발음되는 것처럼 '감기다' 또한 제24항이 적용되어 [감끼다]로 발음해야 해.
- ③ 제24항에 따르면 표기상으로는 똑같이 '신고'라고 할 지라도 그 의미와 성격에 따라 [신꼬]라고 발음해야 하는 것과 [신고]라고 발음해야 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어.
- ④ '넙똥글다'는 [넙똥글다]로 발음해야 하는데, 이는 받침 'ㄹ' 중에서 'ㄹ'만 남아 제26항이 적용되기 때문이야.
- ⑤ 사람들이 '내 것'이라는 말을 [내꺼]라고 발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제27항에 따른 것이야.

모락고등학교 (경기)

5.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협력 → [협녁] ㉡ 휴만 → [휴만]

㉢ 옷맵시 → [온맵씨]

- ① ㉠ : 인접한 자음의 특성에 동화되는 음운 변동이다.
- ② ㉡ : 음운 변동 후 음운의 수가 많아진 것은 아니다.
- ③ ㉢ : 2번의 음운 변동이 나타난다.
- ④ ㉠, ㉡, ㉢ : 비음이 아닌 음운이 비음 앞에서 비음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 ⑤ ㉠, ㉡, ㉢ : 표기와 발음이 달라지는 이유는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양재고등학교 (서울)

6. 다음은 문법 수업의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에 들어갈 말을 차례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도 입	• 선생님의 설명 : ‘굳이[구지], 끝이[끄치], 붙이다[부치다]’처럼 ‘ㄷ, ㅌ’이 모음 ‘ㅣ’를 만나면 ‘ㅈ, ㅊ’으로 바뀌는 현상을 ㉠ 라고 합니다. 그런데 ‘견디다[견디다], 티끌[티끌], 흠이불[흔니불]’ 등에서 ‘ㄷ, ㅌ’이 모음 ‘ㅣ’를 만나지만 ‘ㅈ, ㅊ’로 발음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학습활동을 차례대로 풀어보면서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전 개	(1) 각 단어의 형태소를 분석해 보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top: 10px;"> <tr> <td style="width: 50%; padding: 5px;">㉡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td> <td style="width: 50%; padding: 5px;">㉣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td> </tr> <tr> <td style="padding: 5px;"> • 굳이=굳+-+이 • 끝이=끝+-+이 • 붙이다=붙--+이--+다 </td> <td style="padding: 5px;"> • 견디다=견디--+다 • 티끌=티끌 • 흠이불=흠--+이불 </td> </tr> </table> (2) (1)을 통해 알 수 있는 음운 변동 환경을 정리해 보자. → ㉡에서는 ‘ㄷ, ㅌ’와 ‘ㅣ’가 ㉠에서 만나고, ㉣에서는 ‘흠이불’을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 ‘ㄷ, ㅌ’와 ‘ㅣ’가 ㉢에서 만난다. (3) 모음 ‘ㅣ’가 속해 있는 형태소의 의미를 파악해 보자. → ㉡의 ‘-이’는 문법적인 의미를 가진 ㉢이고, ㉣의 ‘이불’은 구체적인 의미를 가진 ㉣이다.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	• 굳이=굳+-+이 • 끝이=끝+-+이 • 붙이다=붙--+이--+다	• 견디다=견디--+다 • 티끌=티끌 • 흠이불=흠--+이불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				
• 굳이=굳+-+이 • 끝이=끝+-+이 • 붙이다=붙--+이--+다	• 견디다=견디--+다 • 티끌=티끌 • 흠이불=흠--+이불				
정 리	• 선생님의 설명 : 위의 학습활동에서 살펴본 것처럼 ㉠ 현상은 형태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① 구개음화/한 형태소/형태소 경계/형식 형태소/실질 형태소
- ② 구개음화/형태소 경계/한 형태소/실질 형태소/형식 형태소
- ③ 구개음화/형태소 경계/한 형태소/형식 형태소/실질 형태소
- ④ 거센소리되기/형태소 경계/한 형태소/실질 형태소/형식 형태소
- ⑤ 거센소리되기/형태소 경계/한 형태소/형식 형태소/실질 형태소

양재고등학교 (서울)

7. 다음 문장에서 음운의 변동이 일어나는 단어를 모두 찾아 <조건>에 맞게 표준 발음을 쓰시오.

나는 오늘 새로 산 운동화를 신고 지은이와 선릉역 서점에 갔는데 지하철을 잘못 타서 조금 늦게 서점에 도착했다.

<조건>

작성 방법 : 국민[궁민]

양재고등학교 (서울)

8. <보기>의 ㉠~㉣의 밑줄 친 부분에 적용된 음운 변동이 동일 하게 나타난 예가 아닌 것은?

<보기>

국어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유음화, 된소리되기, 거센소리되기 등의 음운 변동이 있다.

- ㉠ 우리 누나는 법학과[버팍파]에 다니고 있다.
- ㉡ 이번 방학에 뜻하지[뜨타지] 않은 행운을 만났다.
- ㉢ 밥을 다 먹었는데[머건는데] 빵도 먹었다.
- ㉣ 친구들을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나눠따].
- ㉤ 마을 최고의 권력자[궐력짜]는 촌장이었다.

- ① ㉠올해 입학식은 3월 2일이였다.
- ② ㉡이렇게 번듯한 가구를 왜 버리는지 모르겠다.
- ③ ㉢새로 이사 간 우리 집은 부엌만 크다.
- ④ ㉣수지가 나에게 꽃다발을 선물로 주었다.
- ⑤ ㉤촌장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권력을 동원했다.

양재고등학교 (서울)

9. <보기>를 바탕으로 음운의 변동과 음운의 개수 변화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보기>

음운의 변동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 어떤 음운이 없어지는 ㉡탈락, 새로운 음운이 생기는 ㉢첨가, 두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합쳐지는 ㉣축약이 그것이다. 음운의 변동 전후로 음운의 개수가 달라지기도 하는데 ‘교체’는 개수의 변화가 없고 ‘탈락’과 ‘축약’은 음운의 개수가 하나 줄어들며 ‘첨가’는 음운의 개수가 하나 늘어난다.

- ① ‘배춧잎[배춧잎]’에서는 ㉠과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나므로 음운의 개수가 1개 늘어났다.
- ② ‘줄넘기[줄림기]’에서는 ㉠과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나므로 음운의 개수가 1개 늘어났다.
- ③ ‘국화꽃[구화꽃]’에서는 ㉢과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나므로 음운의 개수가 1개 늘어났다.
- ④ ‘닭다리[닥다리]’에서는 ㉡과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나므로 음운의 개수에 변화가 없다.
- ⑤ ‘편입학[퍼니팍]’에서는 ㉢과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나므로 음운의 개수에 변화가 없다.

양재고등학교 (서울)

10. <보기>를 참고할 때 동화의 방향이 다른 것은?

<보기>

자음 동화는 음절의 끝 자음이 그 뒤에 오는 자음과 만날 때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닮거나 양쪽 모두 비슷한 소리로 바뀌는 현상이다. 대표적인 자음 동화 현상에는 ‘비음화, 유음화’가 있다.

이러한 자음 동화 현상은 변화 방향에 따라 ‘순행 동화’와 ‘역행 동화’가 있다. ‘순행 동화’란 인접해 있는 두 자음 중에서 뒤의 소리가 앞의 소리를 닮는 것이고, ‘역행 동화’란 인접해 있는 두 자음 중에서 앞의 소리가 뒤의 소리를 닮는 것이다.

- ① 광한루 ② 휴만 ③ 대관령 ④ 달나라 ⑤ 굽는

양재고등학교 (서울)

11. <보기>의 ㉠~㉣에 해당하는 단어로 적절한 것을 고르면?

<보기>

된소리되기는 ‘ㄱ, ㄷ, ㅂ, ㅅ, ㅈ’과 같은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어 소리 나는 현상으로, 다음과 같은 환경에서 된소리로 발음된다.

- ㉠ 받침 ‘ㄱ(ㄱ, ㅋ, ㆁ, ㄷ, ㄷ, ㅈ, ㅈ, ㅊ, ㅊ, ㅌ, ㅌ), ㄷ(ㅌ, ㄷ, ㅌ, ㅌ, ㅌ, ㅌ)’ 뒤에 ‘ㄱ, ㄷ, ㅂ, ㅅ, ㅈ’가 올 때
- ㉡ 어간 받침 ‘ㄴ(ㄴ), ㄹ(ㄹ)’ 뒤에 첫소리 ‘ㄱ, ㄷ, ㅂ, ㅅ, ㅈ’인 어미가 올 때
- ㉢ 한자어에서, ‘ㄹ’ 받침 뒤에 ‘ㄷ, ㅅ, ㅈ’이 올 때
- ㉣ 어간 받침 ‘ㄹ, ㄹ’ 뒤에 첫소리 ‘ㄱ, ㄷ, ㅂ, ㅅ, ㅈ’인 어미가 올 때

㉠	㉡	㉢	㉣
① 책상	신다	절기(節氣)	늪다
② 국밥	젊다	발전(發展)	넓다
③ 깎두기	닭다	전등(前燈)	밟다
④ 압박감	끼엌다	설계(設計)	핥다
⑤ 야단법석	뛰어넘다	결과(結果)	옳다

신송고등학교 (인천)

12. (가)의 ㉠, ㉡에 들어갈 표준 발음을 (나)를 참고하여 바르게 쓰시오.

(가) 학생의 탐구 내용

지난 시간의 문법탐구 모둠활동에서 같은 단어가 주어진 환경에 따라 다르게 발음되는 경우를 공부했어. 이번 시간에 배운 표준 발음법에 따라 이 단어들의 올바른 발음을 생각해 보니, ‘닭은’은 (㉠), ‘닭 앞’은 이어서 발음하면 (㉡)(으)로 발음해야 해.

(나) 표준 발음법 조항

[제14항]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엎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이 경우 ‘ㅅ’은 된소리로 발음함.)

[제15항]
받침 뒤에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들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신송고등학교 (인천)

13. <보기>를 바탕으로 음운변동을 바르게 이해한 것은?

<보기>

음운의 변동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 어떤 음운이 없어지는 ㉡탈락, 새로운 음운이 생기는 ㉢첨가, 두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합쳐지는 ㉣축약이 그것이다.

- ① 달혀[다쳐]에서는 ㉣의 음운현상만 일어난다.
- ② 꽃밭이[꽃빠치]에서는 ㉠의 음운현상만 일어난다.
- ③ 술하다[수타다]에서는 ㉣의 음운현상만 일어난다.
- ④ 값이[갑씨]에서는 ㉠과 ㉡의 음운변동이 일어난다.
- ⑤ 맨입[맨닙]에서는 ㉠과 ㉣의 음운현상이 일어난다.

신송고등학교 (인천)

14. <보기>의 음운 변동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안팍 → [안팍], 부역 → [부역]
 ㉡ 법학 → [버팍], 날고 → [나코]
 ㉢ 꽃눈 → [꼰눈], 뺨는 → [뺨는]

- ① ㉠은 음절의 종성에 놓인 자음이 바뀌는 변동이다.
- ② 음운변동의 결과 음운의 개수에 변화가 있는 것은 ㉡뿐이다.
- ③ ㉢은 조음위치에 동화된 역행적 비음화 양상을 보여준다.
- ④ ㉢에는 ㉠과 동일한 음운변동 양상이 포함되어 있다.
- ⑤ ㉠과 ㉡의 변동이 모두 일어난 예로 옷 한 벌 → [오 탄벌]을 들 수 있다.

신송고등학교 (인천)

15. <보기>의 음운변동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이번에는 발이랑에 토마토와 옥수수를 심었다.

음운현상	㉠	㉡	㉢
발이랑	[㉠]	[㉡]	[㉢]

- | | | |
|-----|-----|-----|
| ㉠ | ㉡ | ㉢ |
| [㉠] | [㉡] | [㉢] |
- ① 음절의 끝소리 [발이랑] ㄴ첨가 [발니랑] 구개음화 [바치랑]

- | | | | |
|---|---------------|--------------|------------|
| ② | ㄴ첨가 [발니랑] | 비음화 [반니랑] | 구개음화 [바치랑] |
| ③ | 음절의 끝소리 [발이랑] | ㄴ첨가 [발니랑] | 비음화 [반니랑] |
| ④ | 음절의 끝소리 [발이랑] | 자음축약 [바디랑] | 구개음화 [바치랑] |
| ⑤ | ㄴ첨가 [발니랑] | 자음군단순화 [발니랑] | 비음화 [반니랑] |

금촌고등학교 (경기)

16. <보기>를 <자료>의 단어들에 적용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비음화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 ㉠비음 'ㄹ, ㄴ'의 앞에서 파열음 'ㅂ, ㄷ, ㄱ'이 비음 'ㄹ, ㄴ, ㅇ'으로 바뀌는 현상이고, 둘째, ㉡'ㄹ, ㅇ'의 뒤에서 'ㄹ'이 비음 'ㄴ'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마지막으로 ㉢'ㅂ, ㄷ, ㄱ'과 'ㄹ'이 만나면 'ㄹ'이 'ㄴ'이 되고, 이렇게 변해서 된 'ㄴ'을 닮아서 그 앞의 'ㅂ, ㄷ, ㄱ'이 각각 비음 'ㄹ, ㄴ, ㅇ'이 되는 현상이다.

한편, 유음화는 ㉣유음 'ㄹ'의 앞뒤에서 'ㄴ'이 'ㄹ'으로 변하는 현상이다.

<자료>

침략, 백로, 권력, 맘며느리, 물난리

- ① '맘며느리'는 ㉠의 규칙에 따라 [만며느리]로 발음해야겠군.
- ② '침략'은 ㉡의 규칙에 따라 [침략]으로 발음해야겠군.
- ③ '백로'는 ㉢의 규칙에 따라 [백노]로 발음해야겠군.
- ④ '권력'은 ㉣, ㉣의 규칙에 따라 [궐력]으로 발음해야겠군.
- ⑤ '물난리'는 ㉣의 규칙이 두 번 적용되어 [물랄리]로 발음해야겠군.

1] 맞춤법의 개념과 제정 이유

- ① 개념: 우리말을 한글로 표기할 때 지켜야 할 원칙을 정해 놓은 어문 규범
- ② 제정 이유: 서로 다른 표기로 인한 의사소통의 혼란을 막기 위함.

■ 한글 맞춤법의 종류와 내용

총칙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칙, 띄어쓰기 원칙, 외래어 표기법 규정
자모	한글 자모(字母)의 수와 순서
단어 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리에 관한 것(단어의 발음법에 관한 규정) • 형태에 관한 것(단어의 표기법에 관한 규정)
띄어쓰기와 그 밖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경우에 대한 띄어쓰기의 원칙 • 한자어, 접미사 등 헛갈리기 쉬운 말들의 표기

2] 제재 정리

갈래	설명문	성격	객관적, 예시적
제재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와 내용		
주제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 이해와 한글 맞춤법에 맞는 표기의 필요성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와 내용을 예시를 들어 설명함. ② 한글 맞춤법의 전체 내용을 살펴보는 대신에 핵심 원리에 해당하는 제1항과 제2항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함. 		

■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제1장 총칙 제1항)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	---

- ① 표기 대상: 표준어 ‘한글 맞춤법: 표준어를 어떻게 적을지 규정한 것’
- ② 원칙

소리대로 적음.	+	어법에 맞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음 형태대로 적는다는 뜻 • 표음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뜻을 파악하기 쉽도록 각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는다는 뜻 • 표의주의, 형태주의

■ 띄어쓰기의 기본 원리(제1장 총칙 제2항)

제2항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	--------------------------

- ① 기본 원칙: 단어를 단위로 하여 띄어 씀.
↳ 문장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함.
- ② 예외: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씀. (제5장 띄어쓰기 제41항)
↳ 조사는 자립성이 없고 주로 단어 사이의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앞말에 붙여 씀.

③ 한글 맞춤법의 일부 조항

■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의 표기

용언의 어간 + 접미사 (제19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간 + ‘-이’나 ‘-음/-ㅁ’ → 명사 예) 길이, 깊이, 걸음, 묶음 • 어간 + ‘-이’나 ‘-히’ → 부사 같이, 많이, 익히, 밝히 • 어간 +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가 된 말 → 소리대로 적음. 귀머거리, 너무 <p style="text-align: right;">} →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음.</p>
명사 + 접미사 (제20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 + ‘-이’ →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음. 예) 곳곳이, 날날이 • 명사 + ‘-이’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 → 소리대로 적음. 모가치, 꼬락서니

■ 띄어쓰기 관련 조항

제41항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제42항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제43항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효문고등학교 (서울)

6. (가)를 바탕으로 (나)의 표현을 검토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한글 맞춤법 제4장 제5절 제35항>
 [붙임2] ‘기’ 뒤에 ‘-어, -었-’이 어울려 ‘내, 겠’으로 될 적에도 준 대로 적는다.

(나)

<보기>

ㄱ. ‘햇볕 좀 쬐려고’는 고치지 않는다.
 ㄴ. ‘말도 안 돼는’은 ‘말도 안 되는’으로 고친다.
 ㄷ. ‘타고 오면 돼’는 ‘타고 오면 되’로 고친다.
 ㄹ. ‘나중에 봐요’는 ‘나중에 봐요’로 고친다.
 ㅁ. ‘일 해야 되’는 ‘일 해야 돼’로 고친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ㅁ
 ③ ㄱ, ㄷ, ㄹ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효문고등학교 (서울)

7. ㉠~㉤에 대한 답변으로 옳바르지 않은 것은?

<발표 주제>
 올바른 띄어쓰기의 사용

<발표 내용>

1. <한글맞춤법 총칙 제2장>에 대한 설명
2. 헛갈리기 쉬운 띄어쓰기의 예시 설명
- 3.

<발표를 들은 후 친구들이 질문한 내용>

㉠ : ‘어쩔수없었다’의 띄어쓰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가고 싶은 데가 있다’에서 ‘데’는 왜 띄어 쓰나요?
 ㉢ : ‘피아니스트마냥’에서 ‘마냥’을 앞에 말에 붙여 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 ‘노력한 만큼’과 ‘나도 너만큼’에서 ‘만큼’의 띄어쓰기는 왜 다른가요?
 ㉤ : ‘어머니를 도와드린다’에서 ‘도와’와 ‘드린다’는 붙여 써야 하나요? 띄어 써야 하나요?

- ① ㉠ : ‘어쩔 수 없었다.’로 띄어 써야 합니다.
 ② ㉡ : ‘데’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의 말과 띄어 써야 합니다.
 ③ ㉢ : ‘마냥’은 조사이므로 앞의 말과 붙여 써야 합니다.
 ④ ㉣ : ‘노력한 만큼’의 ‘만큼’은 의존 명사이고 ‘나도 너만큼’의 ‘만큼’은 조사이기 때문입니다.
 ⑤ ㉤ : ‘드린다’는 ‘도와’에 결합한 보조 용언이므로 앞말과 붙여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효문고등학교 (서울)

8. 아래의 글에서 띄어쓰기를 제외하고 한글 맞춤법에 어긋난 부분을 있는 대로 찾아 모두 바르게 고치시오. (단, 맞춤법에 맞는 표현을 고치면 감점)(맞춤법에 어긋난 부분과 바르게 고친 내용이 모두 맞아야 정답으로 인정)

친구는 건넌방에 있었다. 나는 숨소리가 새어 나가지 않도록 입을 막고 조용히 방에서 나와 계단으로 내려갔다. 아랫집은 텅 비어있었고 대문은 잠겨 있었다. 주변을 살살히 뒤졌지만 열쇠 같은 건 없었다. 달빛 아래 나무가지가 언뜻언뜻 보였고 깨끗이 정리된 건물 구석에는 찻간 불빛 같은 정체를 알 수 없는 빛이 어렴풋이 흔들리고 있었다. 불빛 근처에서 말소리와 함께 무언가를 짹짹 자르는 소리가 들렸다.

“자금 회전률이 왜 이렇게 별로야?”

“그러게 얼른 이 지긋지긋한 셋방을 떠야하는데.”

순간 지금 이곳을 탈출하지 못하면 살아날 확률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속으로 숫자를 3까지 세고 뛰어나가기로 했다. 밤하늘의 달은 촛점 없는 눈으로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흥진고등학교 (경기)

9. <보기>에서 한글 맞춤법에 맞는 것만 골라 묶은 것은?

<보기>

ㄱ. 달팽이는 더드미로 감각을 느낀다.
 ㄴ. 오늘 저녁에 우리 고깃집에서 만나자.
 ㄷ. 나는 김밥과 매운 떡볶이를 좋아한다.
 ㄹ. 학생들은 법석을 피우며 청소를 했다.
 ㅁ. 그녀는 씹쓸한 맛이 나는 차를 좋아한다.
 ㅂ. 인형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얼마나 놀랐던지 몰라.

- ① ㄱ, ㅂ ② ㄱ, ㄴ, ㄷ
 ③ ㄴ, ㄹ, ㅁ ④ ㄱ, ㄷ, ㅁ, ㅂ
 ⑤ ㄴ, ㄷ, ㄹ, ㅁ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한글 맞춤법 총칙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 ‘비가’, ‘오니’, ‘핀다’는 소리 나는 대로 단어의 형태를 적은 것이다. 이처럼 우리말을 한글로 적을 때에는 소리대로 적는 것이 자연스럽다.

• ‘꽃이’, ‘꽃만’, ‘꽃도’를 [꼬치], [꼐만], [꼐또]처럼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꽃[化]’을 ‘꽃’, ‘꼐’, ‘꼐’이라는 여러 형태로 적게 되어 그 뜻을 이해하기 어렵고 독서의 능률도 크게 떨어질 수 있다. 하지만 ‘꽃’이라는 본래 형태를 고정하여 어법에 맞게 적으면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기 쉽다.

(나) 한자음 ‘녀, 뇨, 뉴, 니’나 한자음 ‘랴, 려, 례, 료,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오면 두음 법칙에 따라 ‘여자(女子), 예의(禮儀)’처럼 적고, 그 외에는 ‘남녀(男女), 혼례(婚禮)’처럼 본음대로 적는다.

다만, ‘렬/률’은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오면 ‘열/율’로, ‘ㄴ’이 아닌 받침 뒤에 오면 ‘렬/률’로 적는다.

흥진고등학교 (경기)

10. (가)를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ㄱ. 그새 문이 닫힌 것이다.
 ㄴ. 이곳은 나무가 많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
 ㄷ. 마음을 다친 사람에게엔 따뜻한 위로가 필요하다.

- ① ㄱ의 ‘닫힌’은 어법에 맞도록 적은 것이군.
 ② ㄱ의 ‘닫힌’은 독서의 능률이 떨어지는 표기이군.
 ③ ㄴ의 ‘많-’은 뜻을 쉽게 파악하기 위한 표기이군.
 ④ ㄷ의 ‘다친’은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이군.
 ⑤ ㄱ의 ‘닫힌’과 ㄷ의 ‘다친’은 발음만으로는 의미를 구분할 수 없군.

흥진고등학교 (경기)

11.(나)를 참고할 때, 맞춤법에 맞게 표기된 것으로만 묶인 것은?

- ① 진열(陳烈), 성공률(成功率)
 ② 분열(分裂), 외형율(外形律)
 ③ 선렬(先烈), 내재율(內在律)
 ④ 확율(確率), 실패률(失敗率)
 ⑤ 규율(規律), 시청율(視聽率)

흥진고등학교 (경기)

12. <보기>에서 한글 맞춤법에 어긋난 표기 3가지를 찾아 각각 바르게 고치시오. (단, 띄어쓰기 오류는 찾지 말 것.)

<보기>

오늘은 날씨가 정말 좋다. 하지만 난 수학 공부를 해야 한다. 이 문제는 백분률로 환산해서 적어야 하는데 정답을 모르겠다. 어떤 댓가를 바라고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공부만 하려고 하면 다른 일을 하고 싶어질까? 이런 내 모습은 내가 봐도 안됐다.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에는 공부보다는 역시 밖에 나가서 바람을 쐬어야 해.

흥진고등학교 (경기)

13. <보기>를 바탕으로 한글 맞춤법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제5항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1.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
 2. ‘ㄴ, ㄹ, ㅁ, ㅇ’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

제13항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는다.㉢

제15항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먹어(○)/머거(X), 놓아(○)/노코(X)

핵심 강의 입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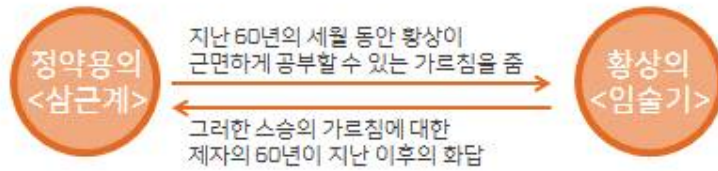
<삼근계>의 핵심 내용

- 둔하지만 공부에 파고들면 식견이 넓어질 수 있다.
- 콧 막혔지만 잘 뚫는 자는 흐름이 거세질 것이다.
- 미욱하지만 잘 닦는 사람은 빛이 날 것이다.

⇒ 공부에 파고들고, 잘 뚫고, 잘 닦기 위해서는 '근면함'이 필요하다.
근면하기 위해서는 마음가짐을 확실히 해야 한다.

핵심 강의 입술기

글을 통한 상호 작용



이처럼 글을 쓰고 읽는 과정을 통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새로운 의미를 획득할 수 있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 먼 옛날의 임술년에는 동파 거사가 시월 보름날 적벽강에서 뱃놀이를 했었고, ㉡ 가까운 옛날의 임술년에는 내가 시월 열흘에 열수(洑水) 정약용(丁若鏞) 선생께 배움을 청했다. 고금(古今)에 한 일이 다르건만 어쩌면 이렇게도 해와 달과 날이 우연히 딱 맞아떨어지고, 이처럼 서로 비슷한 것일까?

그런데 ㉢ 올해 또 임술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미 흘러간 옛날을 되돌아보며 때와 날짜를 두루 헤아려 보노라니 ㉡만 값이 교차한다. 나는 한 시대의 시름 많은 사람이라 할 만하구나!

㉣ 내가 스승님께 배움을 청한 지 이레가 되던 날, 스승님은 문사(文史)를 공부하라는 글을 내려 주셨다. 그 글의 내용은 이렇다.

(나)

내가 산석에게 ‘문사를 공부하도록 하라.’라고 말했더니 산석이 머뭇머뭇 부끄러워하는 기색으로 핑계를 대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저한테는 병이 세 가지가 있어서요. 첫째는 (㉠), 둘째는 (㉡), 셋째는 (㉢).”

그 말을 듣고서 나는 이렇게 말해 주었다.

“공부하는 자들은 큰 병을 세 가지나 가지고 있는데 너는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구나! 첫째는 기억력이 뛰어난 것으로 이는 공부를 소홀히 하는 폐단을 낳고, 둘째는 글 짓는 재주가 좋은 것으로 이는 허황한 데 흐르는 폐단을 낳으며, 셋째는 이해력이 빠른 것으로 이는 거친 데 흐르는 폐단을 낳는단다. (㉠)지만 공부에 파고드는 자는 식견이 넓어질 것이고, (㉡)지만 잘 뚫는 자는 흐름이 거세질 것이며, (㉢)지만 잘 닦는 자는 빛이 날 것이다. 파고드는 방법은 무엇이나. 근면함이다. 뚫는 방법은 무엇이나. 근면함이다. 닦는 방법은 무엇이나. 근면함이다. 그렇다면 근면함을 어떻게 지속하느냐. 마음가짐을 확고히 하는 데 있다.”

(다)

이때 스승님은 동천 여사(東泉旅舍)에 머무르고 계셨다. 나는 나이 15세 소년으로 아직 관례(冠禮)도 올리지 않았다. 선생님의 말씀을 (㉠) 새기고 뼈에 새겨 감히 잃어버릴까 두려워했다.

- 임술기, ‘황상’

동화고등학교 (경기)

1. (가)의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 1082년 송나라에서 소동파가 적벽부를 지은 해를 의미한다.
- ② ㉡: 1802년 황상이 정약용에게 배움을 청한 해를 의미한다.
- ③ ㉢: 1862년 황상이 임술기를 쓰고 있는 해를 의미한다.

④ ㉡: 1082년 먼 옛날의 임술년에 대한 감격스러움과 그리움을 의미한다.

⑤ ㉢: 1802년 옛날의 임술년을 회상하는 것이다.

동화고등학교 (경기)

2. (나)와 ㉠~㉣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명사형으로 나열한 것은?

- ① 짝 막힘-미옥함-둔함
- ② 짝 막힘-둔함-미옥함
- ③ 미옥함-짝 막힘-둔함
- ④ 둔함-미옥함-짝 막힘
- ⑤ 둔함-짝 막힘-미옥함

동화고등학교 (경기)

3. 위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삼근계(三勤戒)는 즉 면학문에 해당한다.
- ② <임술기>는 정약용의 시문집 ‘치원유고’에 수록되어 있다.
- ③ 고전 수필이며 한문 수필이고 한문 산문체의 하나인 ‘기(記)’이다.
- ④ 도입에서 유명한 ‘문인 소동파의 고사를 언급하며 스승과의 만남이 특별했음을 강조한다.’
- ⑤ 정약용으로부터 <삼근계>를 받고 60년이 지나 임술년(1862)이 다시 돌아오자, 그 글의 내용과 자신의 삶을 술회한 것이다.

동화고등학교 (경기)

4. (다)의 (㉠)에 들어갈 한자성어가 ‘명심누골[銘心鏤骨]’이라고 한다면 문맥을 고려하여 그 의미를 정확히 서술하시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먼 옛날의 임술년에는 동파 거사가 시월 보름날 적벽강에서 뱃놀이를 했었고, 가까운 옛날의 임술년에는 내가 시월 열흘에 열수(洑水) 정약용(丁若鏞) 선생께 배움을 청했었다. 고금(古今)에 한 일이 다르건만 어찌면 이렇게도 해와 달과 날이 우연히 딱 맞아떨어지고, 이처럼 서로 비슷한 것일까?

그런데 올해 또 임술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미 흘러간 옛날을 되돌아보며 때와 날짜를 두루 헤아려 보노라니 만감이 교차한다. ㉠나는 한 시대의 시름 많은 사람이라 할 만하구나!

내가 스승님께 배움을 청한 지 이레가 되던 날, 스승님은 문사(文史)를 공부하라는 글을 내려 주셨다. 그 글의 내용은 이렇다.

내가 ㉡산석에게 ‘문사를 공부하도록 하라.’라고 말했다니 산석이 머뭇머뭇 부끄러워하는 기색으로 핑계를 대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전한테는 병이 세 가지가 있어서요. 첫째는 둔하고, 둘째는 짝 막혔고, 셋째는 미웁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 ㉣나는 이렇게 말해 주었다.

“공부하는 자들은 큰 병을 세 가지나 가지고 있는데 ㉤너는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구나! 첫째는 기억력이 뛰어난 것으로 이는 공부를 소홀히 하는 폐단을 낳고, 둘째는 글 짓는 재주가 좋은 것으로 이는 허황한 데 흐르는 폐단을 낳으며, 셋째는 이해력이 빠른 것으로 이는 거친 데 흐르는 폐단을 낳는단다. 둔하지만 공부에 파고드는 자는 식견이 넓어질 것이고, 막혔지만 잘 뚫는 자는 흐름이 거세질 것이며, 미웁하지만 잘 닦는 자는 빛이 날 것이다. 파고드는 방법은 무엇이나. 근면함이다. 뚫는 방법은 무엇이나. 근면함이다. 닦는 방법은 무엇이나. 근면함이다. 그렇다면 근면함을 어떻게 지속하느냐. 마음가짐을 확고히 하는 데 있다.”

<삼근계>

이때 스승님은 동천 여사(東泉旅舍)에 머무르고 계셨다. 나는 나이 15세 소년으로 아직 관례(冠禮)도 올리지 않았다. 선생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뼈에 새겨 감히 잃어버릴까 두려워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61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사이 책을 놓고 쟁기를 잡을 때도 있었지만 그 말씀만은 늘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지금은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먹과 벼루에 젖어 있다. 비록 이뤄 놓은 것은 없다고 할지라도, 공부에 파고들고 막힌 것을 뚫으며 닦으라는 가르침을 삼가 지켰다고 말하기에는 넉넉하며, 마음가짐을 확고히 하라는 당부를 받들어 실천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올해 내 나이 75세다. 이제 내게 남은 날짜가 많지 않으니 어찌 함부로 내달리고 망령된 말을 할 수 있으랴? 지금 이후로 스승님께 받은 가르침을 잃지 않을 것이 분명하고, 제자로서 스승님을 저버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이에 <임술기>를 짓는다.

-임술기, '황상'

재현고등학교 (서울)

5.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작가가 나이 75세 때 자신의 삶의 전환점이 되었던 임술년을 다시 맞아 쓴 것이다.
- ② 작가는 ‘동파거사’의 고사(古事)를 언급하며 스승과의 인연이 특별함을 강조하고 있다.
- ③ 스승은 자신의 모자람을 탓하는 15세 소년 제자에게 그 모자람이 바로 장점이라고 용기를 북돋는 글을 직접 써서 주었다.
- ④ 작가가 스승으로부터 <삼근계>의 가르침을 받은 날짜와 <임술기>를 창작한 날짜는 10월 17일로 동일하다.
- ⑤ 작가는 <삼근계>의 가르침을 받기 전, 문사(文史)를 공부하라는 스승의 조언에 자신의 단점을 나열하며 주저하였다.

재현고등학교 (서울)

6. ㉠~㉤ 중, 가리키는 대상이 다른 하나는?

- ① ㉠ ② ㉡ ③ ㉢ ④ ㉣ ⑤ ㉤

재현고등학교 (서울)

7. 윗글의 ‘정약용’이 <보기>의 ㉠에게 해 줄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요즘의 아이들은 대부분 ‘강의 중독’이다. 무작정 수업을 들으면 끝인 줄 안다. 수업을 듣는다고 해서 알게 된다는 것은 착각이다. 수업은 공부하는 방식에서 어찌 보면 가장 수동적이고 일차원적인 방법이다.(중략)

일종의 자기 위안으로 보이는 경우가 꽤 많다. 뭐라도 듣고 있어야 뭐라도 공부하고 있는 것 같다는 착각에서 오는 것이다. 혼자서 공부한다는 것은 무섭고 두렵다. 듣고라도 있으면 좀 낫지 않을까 싶은 것이다. 공부는 책으로 하라는 말을 하고 싶다. 남이 설명해 주는 것은 남의 것이다. 내 것은 내 책과 내 노력으로 내 머릿속에 넣어야만 생긴다. 불안하다고 더 듣고, 또 듣고, 마치 중독 증세와 다를 바 없지 않은가.

- 《뉴시스》, 2014년 5월 21일

- ① 수업을 들어도 공부를 못한다면 미워하기 때문이다.
- ② 공부는 계획에 맞춰 자신에게 맞는 속도로 해야 해.
- ③ 혼자서 공부하여 성과를 이루려면 긴 시간이 필요한 법이야.
- ④ 좋은 선생으로부터 강의를 들으면 수동적인 태도도 문제될 건 없지.
- ⑤ 혼자 공부하는 것이 두려워도 마음가짐을 확고히 하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중요해.

1-(1) 첫사랑

- 1.㉓ 2.㉓ 3.㉓ 4. 첫사랑을 이룸. 5.㉓ 6.㉓ 7.㉔ 8.㉑
- 9.㉔ 10.㉑ 11.역설(모순), 아름다운 상처 12.㉓ 13.㉓
- 14.㉓ 15.㉑㉔ 16.㉓ 17.㉓ 18.㉔ 19.㉓ 20.㉓ 21.㉔
- 22.㉑ 23.㉑ 24.㉓ 25.㉔ 26.㉑ 27.㉓ 28.㉔ 29.㉑ 30.
- ㉓ 31.㉔ 32.(1)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 (2) 역설법 33.㉓ 34.자연 현상에서 사랑의 의미를 발견하고 있다. 35. 2연,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와 같은 유사한 단어의 반복, '싸그락 싸그락, 난분분 난분분'과 같은 음성 상징어의 사용, '-겠지'라는 어미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36.㉓ 37.㉓
- 38.㉓ 39.㉓ 40.㉓ 41.㉑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순수한 마음 ㉑ 첫사랑을 겪고 난 후에 도달한 정신적 성숙 42.㉓ 43.㉓ 44.㉔ 45.㉓

1-(1) 이화에 월백하고 / 귀뚜라미

- 1.㉑㉓ 2.㉔ 3.㉓ 4.㉔ 5.㉓ 6.(나)는 자유로운 내재율에 의해 운율이 형성되지만 (가)는 3장 형태의 4음보라는 규칙적인 외형률로 운율이 형성됨 7.㉓ 8.㉑ 9.
- ㉔ 10.㉔ 11.객관적 상관물인 자규로 인해 봄밥의 애상적인 화자의 정서가 심화됨. 12.㉔ 13.이화, 월백 14.㉓ 15.㉑ 16.㉑ 17.㉑㉔ 18.㉔㉓ 19.㉑ 20.㉑: 차가운 바닥 ㉑: 높은 가지 21.㉑ 22.㉓ 23.㉔ 24.㉑ 25.㉑
- 26.㉑㉑ 27.㉑ 28.초장을 보면 3-4조로 반복되고 4음 보이기 때문에

1-(2) 봄·봄

- 1.㉓ 2.㉔ 3.㉑ 4.㉓ 5.감투 6.감투를 주지 않아서 / 빌려쓰던 땅을 빼앗아 가서 7.㉓ 8.㉑ 9.특징: 역순행적 구성 / 효과: 장인과 나의 갈등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암시 10.차이: [A]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지만 <보기>는 3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 효과: 객관적으로 상황을 전달한다. 11.㉔ 12.㉑ 13.㉑ 14.㉓ 15.㉓
- 16.㉑ 17.㉑ 18.계절적 배경을 나타냄 / 청춘 남녀의 풋풋한 사랑과 서정적 분위기 자아냄 / 나와 장인의 갈등이 풀릴 수 없는 현실의 순환을 나타냄. 19.㉑
- 20.㉑ 21.㉑가생이 ㉑들입다 ㉑툭툭하다 ㉑채시니 없이 들까불다 ㉑약장 ㉑역성 22.㉑ 23.㉔ 24.㉑ 25.㉑
- 26.㉓ 27.㉓ 28.㉔ 29.(1)윗글은 역순행적 구성이고. <보기>는 순행적 구성이다. / 윗글은 대화와 행동으로 인물들의 성격을 드러냈고, <보기>는 사건의 배경과 결말을 요약적으로 보여주었다. (2)바다 30.㉔
- 31.㉑ 32.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상대방의 모순을 냉철하고 논리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지적수준이 떨어진다. 33.㉓ 34. ㉑ 35.㉔ 36.(1)㉑-㉑-㉑-㉑-㉑-㉑-㉑-㉑ (2)'나'와 장인의 우스꽝스런 싸움을 극대화시켜 작품의 긴장감을 살리고 해학성을 부각한다. 독자가 앞뒤 사건의 관계를 추측하며 읽는 재미가 있다. 사전 예상이나 사후 확인을 통해 사건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1-(3) 아, 참 좋은 울음터로구나!

- 1.㉓ 2.㉑ 3.㉓ 4.㉓ 5.㉓ 6.㉔ 7.㉓ 8.㉑ 백담이 곧 보인다 ㉑ 의인화 ㉑ 주객전도 ㉑ 태복 9.㉓ 10.㉓ 11.
- ㉑ 12.㉓ 13.㉔ 14.㉑ 15.㉔ 16.㉑ 17.㉔ 18.㉓ 19.㉓
- 20.즐거움, 기쁨 21. (C): 좁은 조선 (D): 요동 별판(중국, 청나라) 22.㉓ 23.㉓ 24.진정한 울음은 지극한 상황을 겪어야 나올 수 있다. 25.캄캄하고 좁은 곳에 있다가 넓은 곳으로 나와 느끼는 즐거움과 기쁨 26.
- ㉑ 27.㉓ 28.㉑ 29.㉑ 30.㉓

1-(3) 지갑

- 1.㉓ 2.㉔ 3.돌아가신 어머니를 그리워함. 4.㉑

1-(3) 눈물은 왜 짠가

- 1.㉓ 2.㉔ 3.이 작품에서는 각 문장을 '-습니다'라는 어미로 끝맺고 의도적으로 마침표를 사용하지 않으므로써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4.㉑ 5.설의법

2-(1) 답화 상황에서의 점검과 조정

- 1.㉓ 2.㉓ 3.㉑ 4.㉓ 5.㉔

2-(1) 읽기와 쓰기 과정의 점검과 조정

- 1.㉓ 2.㉓ 3.㉓ 4.㉑ 5.㉓ 6.㉔㉓ 7.㉑ 8.㉑ 9.㉓ 10.㉑
- 11.서양 추상 미술 작품의 특징을 설명함.

3-(1) 음운 변동

- 1.㉑ 2.㉑ 3.㉓ 4.㉓ 5.㉓ 6.㉓ 7.신고[신꼬], 선릉역[설릉녁], 갔는데[간는데], 늦게[늦께], 도착했다[도차캔따]
- 8. ㉓ 9.㉑ 10.㉔ 11.㉑ 12.㉑ [달근] ㉑ [다가페] 13.
- ㉑ 14.㉓ 15.㉓ 16.㉔ 17.㉑ 18.㉑ 19.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20.㉓ 21.㉑ 22. ㉑
- 23. ㉔ 24. ㉓ 25. 구개음화, 구개음화는 음절의 끝소리 ㄷ, ㅌ이 형식 형태소 'ㅣ'나 반모음 'ㅣ'를 만나 구개음인 'ㅌ', 'ㅌ'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26.㉓ 27.㉔
- 28.㉓ 29.㉓ 30.(1) 타라, 모음 탈락 (2) 입학, 거센소

리되기 31. (1) [침:낙] (2) 유음인 'ㄹ'이 (3) 비음 'ㄹ'의 뒤에서 (4) 비음 'ㄴ'으로 변하는 (5) 비음화 현상이다. 32.④ 33.① 34.④ 35.④ 36.② 37.⑤ 38.첨가 39.신고, 갑자기, 왔다 40.④ 41.② 42.④ 43.② 44.③ 45.① 46.⑤ 47.② 48.④ 49.① 50.② 51.② 52.③ 53.④ 54.③ 55.① 56.⑤ 57.① 58.⑤ 59.⑤ 60.⑤ 61.③

3-(2) 한글 맞춤법

1.① 2.④ 3.⑤ 4.③ 5.④ 6.② 7.⑤ 8.살살히→살살이, 나뭇가지→나뭇가지, 싹둑싹둑→싹둑싹둑, 회전롤→회전울, 촛점→초점 9.⑤ 10.② 11.① 12.백분롤→백분울, 댓가→대가, 빼어야→빼야(빼어야) 13.② 14.⑤ 15.③ 16.⑤ 17.④ 18.⑤ 19.(1)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날 때 (2) ㉠ 빗물, 아랫마을 ㉡ 뒷일, 깻잎 20.④ 21.② 22.수만마리가→수만마리가, 선울→선울, 몹시→몹시, 얇은 체→얇은 채, 안된다→안 된다. 23.④ 24.③ 25.③ 26.④ 27.① 28.(1)어름→얼음 (2)어간에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기 때문에 '얼음'으로 표기해야한다. 29.꺼져가는 불꽃처럼 사라질 것인가, 주사위를 한 번 더 던져 볼 것인가. 30. (1) 황금울→황금롤: '렬/룰'은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오면 '열/울'로, 'ㄴ'이 아닌 받침 뒤에 오면 '렬/룰'로 적는다. (2)우유빛→우윳빛: 합성어를 이룰 때 뒷말이 된소리로 발음되면 사이시옷을 적는다. 31.(1)열일곱살, 수는 만 단위로 띄어 쓰며, '살'은 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2) 쓰는데, '-는데'는 연결어미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32.④ 33.① 34.⑤ 35.① 36.① 37.운동한√만큼√좋은√결과를√얻기를√바랐지만√일등은커녕√꿀찌를√했다 38.1) 머거→먹어, 용언은 어간과 어미를 구별하여 적어야 한다. 2) 여기에서 부터→여기에서부터, 조사는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39.⑤ 40.⑤ 41.④ 42.㉠누나의 해쓱한 모습에 어머니께서도 걱정이 되셨나봐. ㉡누나, 짹짹한 음식은 몸에 해로워. ㉢어머니의 정이 듬뿍 담긴 반찬을 먹고 힘을 내길 바라. 43.② 44.② 45.잇몸-(4), 대가-(6) 46.몽둥그려→몽뚱그려:㉠, 씹술한→씹쓸한:㉡ 47.④ 48.④ 49.③ 50.③ 51.② 52.③ 53.⑤ 54. (1)도라간다→돌아간다 (2)두 용언이 어울려 하나의 용언이 된 경우 앞말의 본래 의미가 유지되고 있으면 원형을 밝혀 적는다. 55.② 56.⑤ 57.줄넘기를√시작한√지√이틀째인데√겨우√열√개를√할√뿐이다. 58.⑤ 59.① 60.③ 61.④ 62.③ 63.① 64. ㄱ. 되요→돼요 ㄴ. 뵈요→뵈

요 ㄹ: 순대국→순댓국 65.②

4-(2) 엷박자 D

1.④ 2.③ 3.① 4.⑤ 5.④ 6.⑤ 7.'엷박자 D'는 학창 시절 박치에 음치였던 등장인물의 별명으로 음악 선생은 획일성을 강요하지만 엷박자D는 다름과 차이를 인식함. 8.②

4-(2) 통승

1.② 2.① 3.③ 4.차별적 시선이 담긴 관심을 보인 것에 대해 스스로의 모습을 인식하고 자기 반성을 함. 5.서울로 올라온다는 것은 다른 지역보다 서울이 우월하다는 편견을 나타낼 수 있기에 서울로 이동할 것으로 고쳐야 함. 6.⑤

5-(1) 항상

1.④ 2.⑤ 3.④ 4.선생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뼈에 새김. 5.④ 6.④ 7.⑤ 8.① 9.② 10.③ 11.⑤

5-(2) 네가 누리는 축복을 세어 보라

1.① 2.② 3.③ 4.④ 5.ㄷ,ㅁ 6.⑤ 7.② 8.④

- 끝 -